

# ‘예술 옷’ 입은 달동네에 별이 내려앉았다

## 도시재생

### 문화가 해법이다

국내편 (1) 부산 감천문화마을

#### 부산=박진현 문화선임기자

최근 도시재생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도시경쟁력=국가경쟁력’으로 인식되면서 도시를 되살리는 프로젝트들이 경쟁적으로 진행중이다. 특히 2000년 대 이후 대규모 철거방식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간직한 근대유적이거나 빈 건물, 공장에 예술과 스토리텔링으로 생기를 불어넣은 문화적 도시재생이 대세로 떠올랐다.

도시재생은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꿈꾸는 광주에게 ‘발등의 불’이다. 옛 전남도청에 첫 삽을 뜬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이 오는 10월 완공되면 전당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문화적 생태계가 시급하다. 자칫 도시를 방치할 경우 문화전당은 지역사회와 고립된 거대한 섬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기획은 1부 국내편(서울, 부산, 대구, 인천, 마산, 전주), 2부 해외편(런던, 게이츠헤드, 파리, 도쿄, 요코하마)으로 나눠 문화의 숨결로 되살아난 국내외 도시들을 조명하고자 한다.



나인주의 ‘어린왕자와 사막여우’



감천문화마을의 백미는 골목길 투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1순위로 떠오른 부산 감천문화마을의 전경. 가파른 산비탈에 자리한 파스텔톤의 지붕들과 파란색 물통이 어우러져 독특한 풍경을 자아낸다.

/부산=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4월 7일 오전 자동차로 3시간쯤 달려 도착한 감천문화마을의 길목은 명성에 비해 너무 초라했다. 흩서 길을 잘못 찾은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낡고 칙칙했다. ‘문화마을’이라는 화려한 이름이 무색할 정도였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 차를 세우고 천천히 골목길에 접어들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가파른 산비탈에 자리한 파스텔톤의 지붕들과 파란색 물탱크가 기하학적인 풍경을 빚어낸다. 마치 그리스의 산토리니 마을을 연상케 한다.

우선 감천문화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작은박물관’이 방문객을 반긴다. 100㎡ 규모인 박물관에는 6·25전쟁 직후 50년대의 옛 생활 모습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작은박물관에서 마을의 ‘과거’를 알게 됐다면 이제 본격적인 골목투어에 나설 때다.

가파른 골목길은 오르기 힘들지만 골목 구석구석과 빈집을 채운 예술작품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물고기 형상의 안내표시를 따라가다 보면 아름다운 조형물들이 예고없이 불쑥 눈앞에 나타난다. 문병탁의 ‘무지개가 피어나는 마을’, 전영진의 ‘사람 그리고 새’, 신부경의 ‘달콤한 민들레의 속삭임’ 등이 숨어 있는 보물들이다.

골목길이 많은 건 마을의 태생과 관련이 깊다. 감천문화마을은 피난민들이 만들어낸 ‘달동네’다. 지난 1950년 6·25 전쟁때 피난민들이 물러와 계단식 단층 주택을 다닥다닥 짓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됐다. 여기에 1958년 태극도 신도 4000여 명이 모여들면서 약 1060세대의 판자촌이 들어섰다.

마을과 골목을 돌아다니다 보면 시계바늘을 6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은 듯 하다. 푸른 바다와 파스텔톤의 마을이 한쪽의 풍경화를 이루면서 관광객들의 가슴 한켠에 독특한 이미지를 심어놓는다. 특히 앞집이 뒷집을 가리지 않도록 지어진 계단식 구조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미덕을 느끼게 한다.

초라한 달동네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변신하게 된 것은 지난 2009년부터. 행정구역상 부산시 사하구 감천2동인 이곳은 한때 거주인구가 3만 명에 달하는, 제법 큰 마을이었다. 하지만 일자리를 찾아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빈집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대다수의 집이 10평에서 12평 안팎에 불과해 대가족이 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한몫했다. 그러다 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약 9700여 명. 이 가운데 70% 정도가 50세 이상이고 20% 정도가 65세 이상 노인들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30~40년 이상 마을을 지키며 동고동락해온 사람들이다. 또한 마을 전체 1060세대 중 200채가 빈집인 상태다.

이처럼 온기를 잃어가던 마을에 눈길을 들린 사람은 예술가들이었다. 이들은 사하구, 주민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곳곳에 10여 개의 예술작품을 설치하는 마을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피추’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는 오늘날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씨앗이 됐다. 이들은 현대식 재건축·재개발 대

## 현대식 재건축 대신 마을 보전 선택 2009년 예술작품 설치 프로젝트 빈집에 창작 전시공간·골목엔 벽화 주민 중심·예술가·행정 ‘환상호흡’



감천문화마을 입구에 자리하고 있는 허영주의 ‘포도가 있는 풍경’(사진 뒷부분)과 진영섭의 ‘골목길을 누비는 물고기’(아래)

신 마을을 그대로 보전하면서 빈집 30여 채를 창작 전시공간으로 꾸미고 골목에는 벽화와 예술작품을 설치했다.

‘꿈을 꾸는 부산의 마추피추’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예술가와 주민들은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 융합형 관광협력사업’에 눈을 돌렸다.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과가 ‘미로미로(美路迷路) 골목길 프로젝트’, 테마가 있는 빈집프로젝트, 골목길 재생 프로젝트들이다. 특히 지난해 9월 설치된 설치미술가 나인주의 조형물 ‘어린왕자와 사막여우’는 마을의 아이콘이다.

전순선(사)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부회장은 “감천문화마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마을의 입지적인 조건과 예술가·주민·행정의 환상적인 호흡”이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의 설명대로 감천문화마을은 주민들이 ‘주인’이다. 지난 2009년 일부 예술가와 주민들이 중심이 된 조직은 지난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으로 유지돼오다 지난해 사단법인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로 발족했다. 현재 주민 12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산하에 봉사단, 홍보단, 사업단 등 5개 조직으로 구성됐다. 회원 가운데 약 20명은 마을 해설사로 활동중이고 10여 명은 주민협의회가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 등 5곳에서 일한다.

주민협의회 회원들은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모임을 갖고 마을의 전반적인 운영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매월 모임에는 입주작가들은 물론 부산시와 사하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안 등을 논의한다. 무엇보다 부산시와 사하구청은 도시재생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산하에 창조기획단을 신설해 행정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는다.

사실 감천문화마을이 도시재생의 모델로 자리잡기까지는 주민들의 고충도 적지 않았다. 관광객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이면 하루 평균 3000여 명이 방문할 정도로 마을 전체가 인파로 북적거린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하루 종일 소음이 시달리고 방문객들이 남기고 간 각종 쓰레기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주민협의회는 사하구청과 공동으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공공의식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주민들에게는 관광이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민협의회가 직접 관리하는 식당과 카페, 아트샵 등의 수익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한편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환경개선 등 가시적인 효과를 창출했다.

이러한 민관 공동의 모범적인 운영사례는 지난 2012년 UN-HABITAT 후쿠오카 분부, 아시아 경관디자인 협회 등 4개단체로 창설된 아시아 도시경관상의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기도 했다.

하지만 감천문화마을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단지 이 같은 화려한 모습 때문만은 아니다. 독특한 장소성과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적 재생이야말로 감천2동의 오늘을 있게 한 원동력이다. 창조적 도시재생을 꿈꾸는 광주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과주맛집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킨 광주 대표 맛집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개원동 휴블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http://www.geumsoojang.com)